

'응답하라 1978'을 마치며 서울주보가 주는 믿음과 증언의 기억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응답하라 1978〉은 서울주보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서울주보는 서울대교구의 역사일 뿐 아니라 근대의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한 시인은 “울고 있는 슬픈 여인이나 병들어 불행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과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힌 여인”이라 노래했습니다. 잊힌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기록은 기억을 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응답하라 1978〉은 단순히 과거의 교회 역사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지금 다시 현존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주재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기억하라”였습니다. 즉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매 순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동일한 ‘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기억에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가 바로 기억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억에서 누군가가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4년 8월 14일부터 4박 5일의 여정을 마치고 8월 20일 수요일에 있었던 일반 알현 때 한국 방문을 소상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한국 방문을 마쳤습니다. 저는 순교자들의



1978년 5월 7일 '서울주보 1호'

증언 위에 세워졌고 선교의 영에 의해 활기가 넘치는, 젊고 역동적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의 오랜 문화와 복음의 끊임없는 새로움이 만나는 곳입니다. (중략) 이번 사도적 방문의 의미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억, 희망, 증언입니다.”

한국민들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받은 힘을 지속해가는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는 기억과 희망의 수호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순교자들의 기억은 현재에서 새로운 증언이 되고 또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응답하라 1978〉을 통해 얻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은 인간에게 주신 하느님의 큰 은총입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통해 늘 현재 속에서 새롭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 어디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특히 누군가의 좋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유쾌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응답하라 1978〉이 우리 믿음의 기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존하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도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서울주보가 믿음과 증언에 관한 기억의 창고가 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낍니다. 그동안 읽어 주신 독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